

3/28/21

설교 제목: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빌립보서 3장 5-11절

5 내가 팔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며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주간 첫 날인 주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이스라엘 왕의 가는 길에 자신들의 겂옷을 벗어 펴고 그 위에 종려 나무 가지를 깔아
환영하였습니다.

또 손에는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습니다.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다윗 왕 때와 같이 이스라엘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난 주간 둘째 날인 월요일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 가셔서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난 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에 예수님은 성전 청소에 양심을 품고 예수님을 울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제사장들과 사기관들을 꾸짖은 후 감람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환란 전과 대환란, 대환란 후에 있을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난 주간 넷째 날인 수요일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몸에 비싼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고난 주간 다섯째 날인 목요일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때 이미 가롯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주간 여섯째 날인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수난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겿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제사장들이 보낸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갔으며 새벽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후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셨고 6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시다가 오후 3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첫 안식일인 토요일을 무덤에서 보내시고 안식 후 첫 날 주일 새벽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부활의 영광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함께 고난에도 참여하는 성숙함을 가져야 합니다.

(롬 8: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롬 8: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본문이 기록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도도 편으로 돈을 보내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 대해 써서 보냈습니다. 감옥에 갇혀 고난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을 누린다는 놀라운 간증이며 권면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인생에 어디엔가 가치를 두고 삽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 각자의 삶의 목적이 정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자였습니다.

5 내가 팔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는 유대인 그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인 왕족이었으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대 최고 학자 가말리엘의 제자로 최고의 학문을 닦은 자였습니다.

당시 번영한 도시였던 다소 출신이었으며 그의 집은 부유하였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철저히 지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기에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의가 자신이 율법을 지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란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후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소중하게 붙잡고 살았던 세상적인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그의 가치관의 변화는 삶의 목적에 대한 변화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여태까지 추구했던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든 부활에 이르기를 추구했습니다.

부활이 삶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열망했습니다.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열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의미를 '하나님을 아는 것' 또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단지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연유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위해 핍박받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후 4:6)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 빛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이 시작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열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열망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 각자에게는 주어진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눅 9:23)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성도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딤후 3:1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벧전 4:12)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벧전 4:13)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신을 날마다 죽였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가 그토록 열망했던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전 15: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는 자가 되었을 때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롬 6: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롬 6: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롬 6: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롬 6: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롬 6: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롬 6:11)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롬 6:12)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롬 6: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오직 마지막 날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 그를 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놓지 못하고 붙잡고 계신 세상의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고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